

2025년 7월 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상호 관세와 삼성전자 실적으로 무게 이동

한국 증시는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벤트, 2) FOMC 의사록, 3) 한은 금통위, 4)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 반도체 수급 변화, 5) 조선, 기계 등 기존 주도주들의 수급 이탈 지속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980~3,100pt).

트럼프의 초고을 상호 관세 언급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으며, 7월 31일까지 한국 등 각국의 협상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 이를 감안 시, 금주 뉴스 플로우의 중심에 있을 예정인 상호관세는 4월 초처럼 증시 방향성을 훼손시키는 악성 이벤트 라기 보다는 단기 변동성 유발 요인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타당. 국내 증시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8일)이 주요 이벤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 이익 추정치 하향세 중단 등을 업황 터어라운드 전망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포인트. 또 7월 들어서자 마자 가파른 조정을 받았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업종 주가 및 수급 불안 진정 여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상법 개정안 통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기대감, 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기존 주도 업종(조선, 방산 등)과 소외 업종(철강, 화학 등) 간 로테이션 진행되며 양 지수는 하락 마감(KOSPI -0.05%, KOSDAQ -0.74%).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 주 트럼프 AI 행정명령 등 호재에 따른 HBM, 전력기기 중심으로 강세 출발했으나, 이후 외국인 순매도 확대 속 방산, 건설,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영향으로 보합권 출발.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앞두고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된 가운데 2일 장 마감 이후 여야 합의 하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험의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를 등이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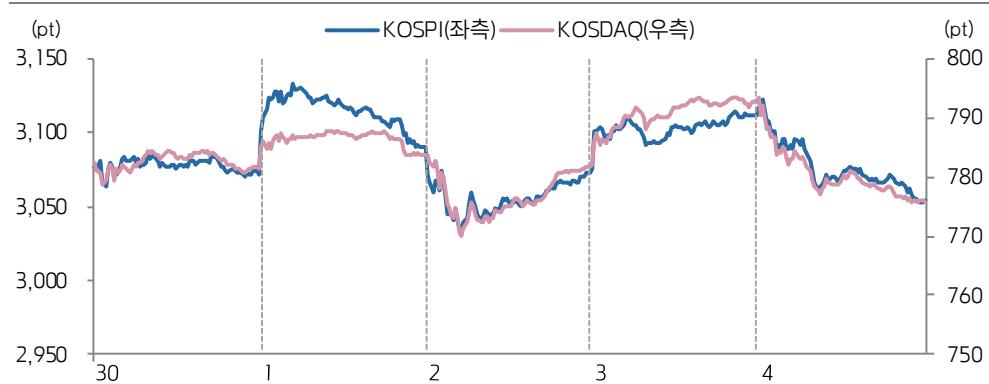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시한 도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 뉴스플로우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베트남과 두 번째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 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도 통과. 미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였지만, 기업 이익 개선 기대감에 미 증시는 주 후반 신고가 재차 경신.

한편,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7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11.1만)를 큰 폭 상회,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4.3%)를 하회. 금번 고용 지표 호조는 대부분 정부 고용(5월 0.7만 → 6월 7.3만)의 증가분에 기인하였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고용 지표로 인해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후퇴.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소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기존 주도 업종과 소외 업종 간 로테이션 순환매 연출.

업종별로 화학(+6.55%), 제약(+5.53%), 운송/창고(+4.11%), 금속(+4.1%), 유통(+2.91%)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장비(-7.76%), 건설(-6.65%), 증권(-5.55%), 운송장비/부품(-5.06%), 오락/문화(-3.34%)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43억원)은 전기/전자(+2,732억원), 금속(+2,350억원), 화학(+1,474억원), 제조(+1,436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1,884억원) 제조(+7,687억원), 금융(+3,410억원), 전기/전자(+2,908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 월 7 일	월	일본	실질임금 (YoY)	5 월	-1.6%	-2.0%
			유로존 센티스 투자자기대지수	7 월	1.0	0.2
			소매판매 (MoM)	5 월	-0.8%	0.1%
			소매판매 (YoY)	5 월	1.4%	2.3%
7 월 8 일	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6 월	97.9	98.8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3.60%	3.85%
			실적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7 월 9 일	수	중국	PPI (YoY)	6 월	-3.1%	-3.1%
			CPI (YoY)	6 월	0.0%	-0.1%
		미국	도매재고 (MoM, 최종치)	5 월	-0.3%	-0.3%
		예정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한국시간 13:00)			
		공개	FOMC 회의록 공개			
7 월 10 일	목	일본	PPI (YoY)	6 월	2.9%	3.2%
			PPI (MoM)	6 월	-0.1%	-0.2%
		회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실적	델타 에어라인스			
		발언	세인트루이스·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7 월 11 일	금	독일	CPI (YoY)	6 월	2.0%	2.0%
			한국 ~10 일까지 수출 (YoY)	7 월	-	5.4%
			~10 일까지 수입 (YoY)	7 월	-	11.5%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벤트, 2) FOMC 의사록, 3) 한은 금통위, 4)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 반도체 수급 변화, 5) 조선, 기계 등 기존 주도주들의 수급 이탈 지속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980~3,100pt).

한동안 관세 민감도가 낮아졌던 주요국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7월 8일)이 임박함에 따라 그 민감도는 재차 높여갈 전망. 현재 트럼프는 특정 국가 및 관세율을 밝히지 않았으나, 12개국 대상으로 7월 7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 일단 지난주 협상을 체결한 베트남은 기존 46% 관세(보편관세 10% + 상호관세 36%)에서 20% 관세(보편관세 10% + 상호 관세 10%)로 최종 확정된 상황. 베트남 사례를 미루어 보아, 주식시장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다른 국가들도 4월 2일에 발표된 것보다 얼마나 낮은 관세율이 책정될 지가 해당(한국은 기존에 보편 관세 10% + 상호관세 25%였음).

여기서 대부분 국가가 기존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부과 받게 되더라도, 이미 적용 중인 보편관세 10%보다 관세 부담을 커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 가령, 한국 입장에서 관세 부담 증가는 국내 수출주들의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음. 이는 최근 관세 발 가격 조정 마무리 후 주가 바닥을 확인 중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 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반에 걸쳐 지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

하지만 벌써부터 이 같은 워스트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현재 한국은 통상교섭단 측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관세율을 낮추거나 추가 유예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 트럼프가 일부 국가들은 60~70%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 했으나, 7월 8일 즉시가 아닌 8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부분. 결국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언급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으며, 7월 31일까지 한국 등 각국의 협상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 이를 감안 시, 금주 뉴스 플로우의 중심에 있을 상호관세는 4월 초처럼 증시 방향성을 깨손시키는 요인이 아닌 단기 변동성 유발 요인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정 시 매우 전략으로 접근하는 타당.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8일)이 주요 이벤트. 6월 역대급 강세장에서 수익률이 +6.4%에 그쳤던 삼성전자는 7월에는 +5.9%대 상승세를 기록 중. 물론 삼성전자의 7월 주가 급등은 6월 코스피(6월 +13.9% vs 7월 -0.6%)와 SK하이닉스(6월 +42.8% vs 7월 -7.4%)의 주가 상승과 키 맞추기 성격이라는 것이 종론. 향후 관건은 주가 키맞추기의 추가 진행 정도이며,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 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2분기 컨센서스는 HBM3E 통과 지연, 관세 발 DX 사업 드라마 등으로 부진할 전망이나, 주가에는 4~6월 중 선반영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 이익 추정치 하향세 중단 등을 업황 터어라운드 전망이 우위를 점할지가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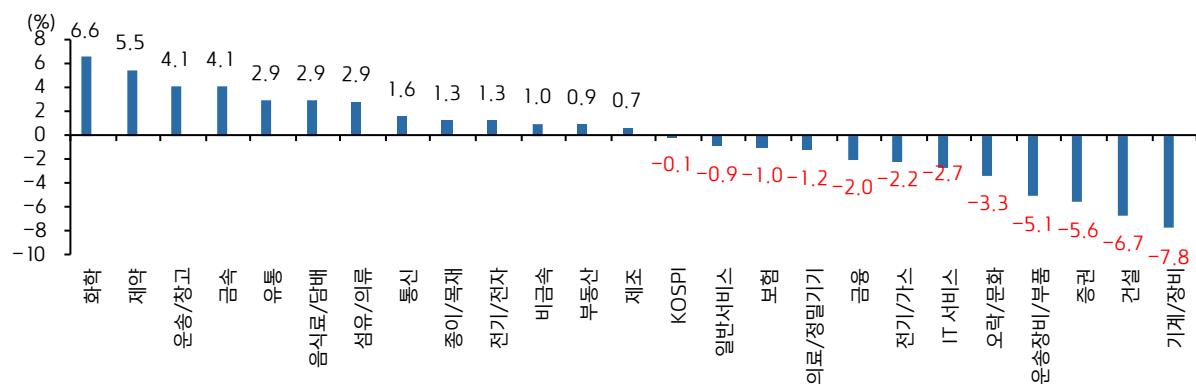
7월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조정을 받았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업종 주가 및 수급 불안 진정 여부도 중요한 이슈(7월 코스피 -0.6% vs 조선 -12.1%, 기계 -10.3% 등). 이들은 6월까지 국내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주가 급락으로 국내 증시 전반에 걸쳐 체감상 하락 정도를 키우고 있는 만큼, 금주 업종 단에서는 이들 주가 및 수급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3,054.28	-2.0	-0.1	10.2	27.3
대형주	3,048.56	-2.0	-0.1	10.9	27.6
중형주	3,370.80	-2.5	0.2	6.7	26.8
소형주	2,501.12	-1.5	1.5	4.4	19.4
코스피 200	412.74	-2.0	0.0	11.6	29.9
코스닥	775.80	-2.2	-0.7	3.4	14.4
대형주	1,801.91	-3.1	-0.8	3.8	11.7
중형주	706.84	-1.8	-0.9	4.3	19.9
소형주	2,544.11	-1.2	-0.3	2.6	14.2
코스닥 150	1,259.76	-3.0	-0.7	3.6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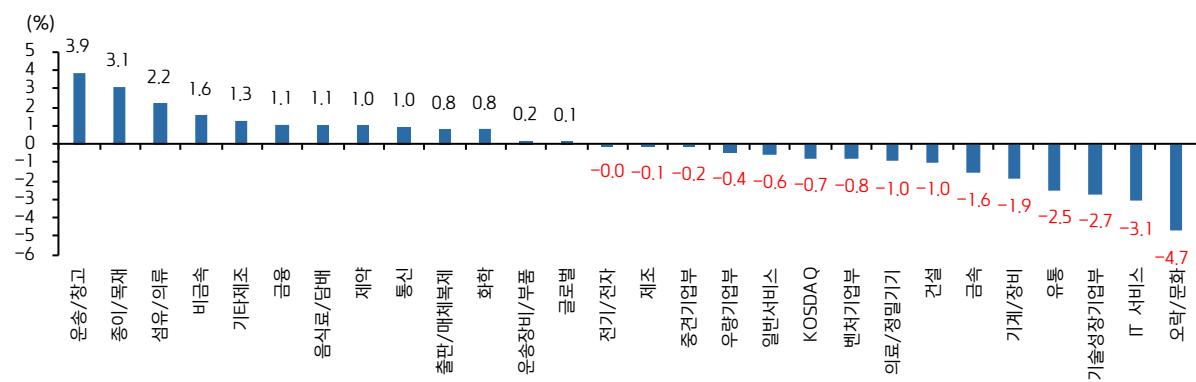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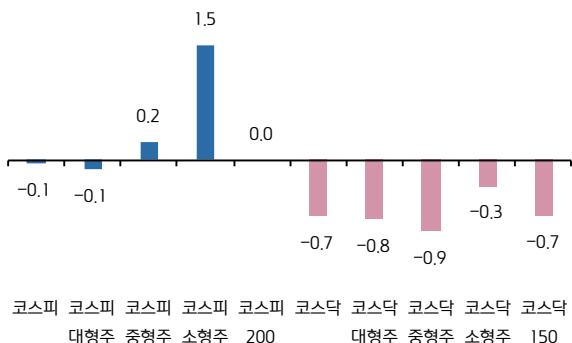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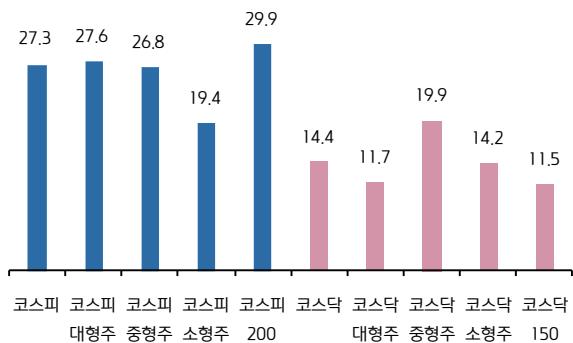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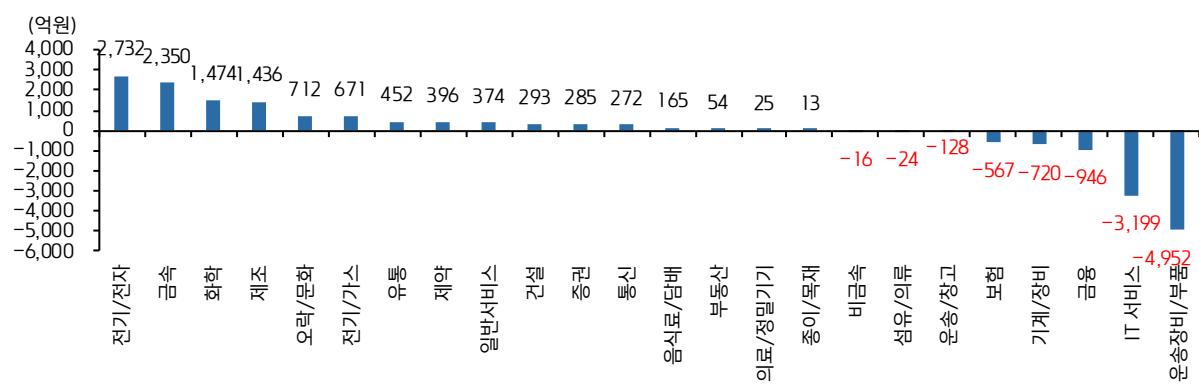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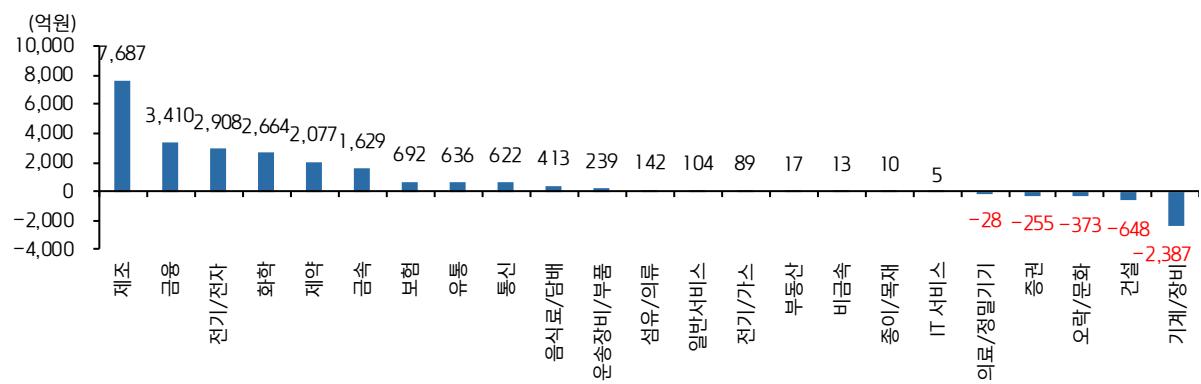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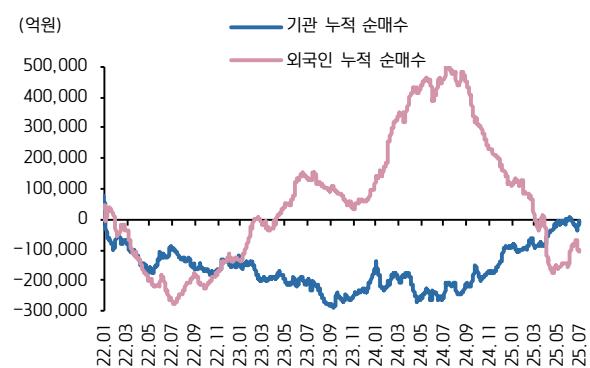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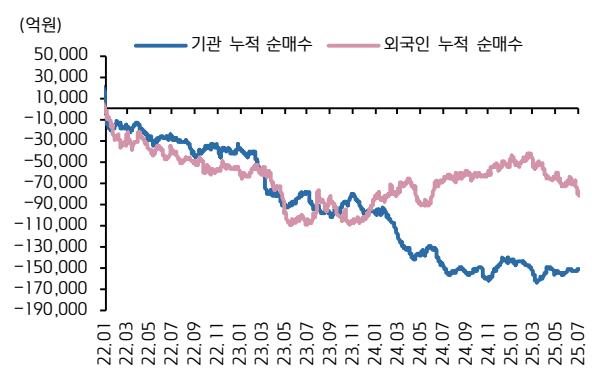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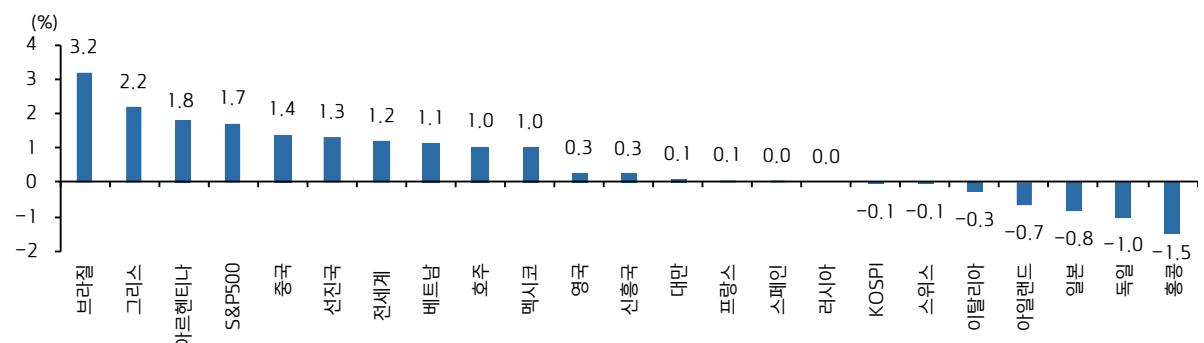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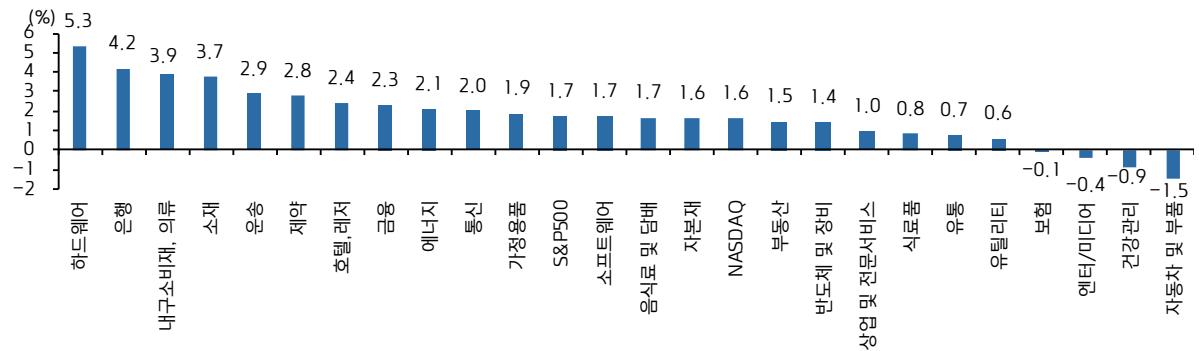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7월 7일

KIWOOM WEEKLY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